



Market Index / 25일

코스피지수 ▲ 3008.33 +11.98	코스닥지수 ▲ 954.99 +1.17	유가(WTI, 달러) ▲ 61.18 +3.42	환율(원) 1USD 100¥ 1153.33 1058.44	살매 1113.67 1022.04	팔매 1366.16 182.14	1EUR 1CNV 1312.86 164.80
---------------------------	-------------------------	------------------------------	---------------------------------------	-----------------------	----------------------	--------------------------------

# 제주산 농산물 품목별로 농가 '희비'

출하 시작된 조생양파값 평년보다 50% 이상 상승  
마늘 포전거래가격 높아 농협 계약재배 수매가 관심  
양배추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 3300t 시장격리

출하가 한창이거나 곧 출하를 앞둔 제주산 농작물이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품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가 하면 일부 품목은 가격이 평년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앞으로도 좋은 가격이 유지될지에 농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정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된 조생양파의 25일 서울가락시장 경락가는 kg당 1740원으로, 평년 3월(1099원), 지난해 3월(1115원)에

비해 56~58% 올랐다. 이같은 가격 호조세는 2020년산 전국 양파 재고량이 7만3000t으로 전년(8만7000t)보다 16% 감소하고, 가정용으로 수요가 늘어난 중소과 양파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올해 제주산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531ha로 전년 대비 9.7% 늘고, 평년보다는 2.7% 감소했다. 생산예상량은 3만2000t 안팎이다. 전국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2939ha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9.5%, 2.1% 증가했고 생산량은 평년보다 2.8% 증가한 20만6000t 안팎으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가격 호조세를 띠는 조생양파의 앞으로의 가격은 미지수다. 앞으로 출하량이 당분간 증가하고, 양파 재고량 감소로 민간수입업자들이 일본·미국산을 중심으로 몰들어 이달 15일까지 들어온 물량이 2만5657t으로 전년동기(6172t)보다 4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조생양파와 조기 수확과 수입량 증가로 최근들어 가격이 내리고 있어 앞으로 가격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에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해 오는 5월 중순쯤 수매가가 결정될 마늘 가격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제주산마늘 재배면적은 1795ha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7.6%, 1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평년보다 9.4% 줄어든 2만

3528ha로 예상되며 제주지역 마늘 주산지인 대정지역에서 이달들어 평년보다 높은 3.3㎡당 1만8000~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올해산 마늘 계약가는 kg당 2500원인데, 최근 발매 거래가격 상승에 농가들은 수매가가 계약을 훨씬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제주산 양배추는 작황 호조로 생산예상량이 지난해보다 16.2% 증가하며 이달 13일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8kg(상품)에 3290원으로, 평년(7052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가격 폭락에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주양배추연합회는 지난 17일 3300t의 시장격리(산지폐기)를 결정하고, 신정농가에 물량 배정을 마쳤다. 그 후 경락가는 22일 6163원, 23일 8426원, 24일 6389원, 25일 5002원을 기록했다. 문미숙기자

## 작년 제주 어류양식 생산액 2919억원

전년보다 33%가량 늘어  
넙치, 전국 생산량의 53%

지난해 제주지역 어류 양식업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동시에 증가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류양식 업체는 277곳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해상가두리는 전년과 같은 3곳이고, 육상 수조식은 274곳으로 5곳 줄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류양식 종사자는 지난해 1630명으로 전년보다 7.0%(123명) 줄었다.

지난해 도내 어류양식 생산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넙치류 생산량이 2만3400t으로

전년보다 4.5% 늘면서 전국 생산량(4만3800t)의 53.4%를 차지했다. 조피볼락과 참돔이 각각 100t씩 생산됐고, 기타 어종 생산량이 1300t으로 집계됐다.

도내 어류양식 생산금액은 2919억원으로 전년보다 32.9%(722억) 늘었다. 넙치 생산액이 전년보다 36.4%(731억원) 많은 2739억원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돌돔 생산량도 2019년 16억원에서 지난해 2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조피볼락 생산액은 4억원, 참돔 5억원, 기타 어종 생산액은 14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어류양식 생산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자금 확보와 폐사 방지를 위해 생산비중 높은 넙치를 조기 출하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문미숙기자

## (주)오존에이드, 제주 첫 '우수혁신제품' 인증

"농산물 신선도 유지 가능"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주)오존에이드가 '혁신창업 아이템'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제주서는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과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오존에이드에서 개발한 대기압 저온 방진기술을 통해 농산물 저

장 및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오존발생장치는 지난 1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받아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 전용물'에 입점했다.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입주기업인 (주)오존에이드는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진행한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지원을 통해 이 혁신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제품개발과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고대리기자



제주 봄 바다 즐기는 관광객들. 안전한 봄 날씨를 보인 2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래사장을 거닐며 제주 봄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민기자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지원 6개월 연장

###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한 한시 조치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간을 올해 3월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대출실적의 50~75%를 은행에 연 0.2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

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총 1900억원을 지원했다. 세 차례에 걸쳐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지원업종도 확대해 올 1월 기준 1900개 업체가 평균 2억7000만원의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번에 연장되는 금융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의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신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대한 포함)이다. 단 금융·보험업과 유통주점,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관광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협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주의 모습을 알리는 '2021년 제주관광 온라인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관광 온라인 홍보 사업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이용률이 높은 SNS 매체를 활용, 제주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여행객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유도해 제주

지역 바이럴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해 동안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도내 자연환경과 체험거리를 홍보하며, 트래킹·친환경 여행문화 플로깅 등 관광 다변화와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위해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ty9456@ihalla.com

##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4개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차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어음·수표 할인시 1.6%, 단기운전자금대출시 1.6%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26개 업체에 18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2000만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